



**GWANGJU**  
FOOTBALL CLUB

2012 No.3  
GWANGJU F.C  
Matchday Program

# VIEW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 내 2층 TEL : 062) 373-7733



## 끝을 모르는 광주의 명품 질주본능

창단 최초 2위 랭크... 5경기 연속무패 도전

광주FC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공존하는 팀이다. 선수들 마음 속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자리잡고 있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두려움 따윈 없다. 어디까지 한계선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진만 할 뿐이다.

광주FC 선수 일동



**GWANGJU**  
FOOTBALL CLUB

VS



강원FC

2012.04.01 15:00 광주월드컵경기장

WWW.GWANJUFC.COM TWITTER @GWANGJU\_FC FACEBOOK @gwangjufc me2day /gjfc0



# POINT of VIEW



K리그 2년차 광주FC가 무서운 돌풍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나씩 써 내려가고 있다. 광주는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FC와 현대오일뱅크 2012 K리그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K리그 개막과 함께 화끈한 공격력을 뽐내며 4경기 만에 K리그 왕좌에 오른 광주FC는 강원을 맞아 확실한 상위권 굳히기에 나선다.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개막전 상주 상무 원정 경기를 이긴 것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1위 서울과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 뒤져있는 게 아쉽다.

지난해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웃었다. 광주는 5월 강원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기며 원정경기 4전 전패의 사슬을 끊어냈다. 당시 리그 14위에서 6계단을 뛰어올라 8위까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광주 홈경기에서는 이승기가 홀로 2골을 뽑아내며 강원의 반란을 잠재웠다. 반면 강원은 광주에 발목을 잡히며 홈 무승과 시즌 원정 무승(2무9패)의 부진의 늪에 빠졌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작년과 올해의 강원은 완전히 다른 팀이다. 전금 멤버 대다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면서도 “4월에는 홈팬들에게 2번밖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 광주 vs 강원 잇몸 싸움

양 팀의 공백이 상당하다.

광주는 올 시즌 박기동과 이용, 이승기 등 주전 멤버가 빠진 상태에서 K리그를 헤쳐 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번 경기에 핵심킬러 김동섭과 캡틴 김은선이 경고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빛을 보지 못했던 임선영, 정우인, 임하람 등이 활약하며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공격의 핵인 ‘복주슈 (복이·주앙·슈바)’ 외인부대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은 부상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김정주가 발목피로골절로 쓰러졌다. 중앙 수비를 책임지던 박우현은 훈련 중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김은중도 발목 부상으로 아직 회복이 필요한 단계다. 주전 멤버들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셈이다.

광주는 백업 선수들의 꾸준한 연습경기로 인해 컨디션이 한껏 올라온 상태다. 최만희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기대된다.

## 2012 시즌 광주FC 공격포인트

이름	포지션	득점	도움
1 주앙파울로	FW	3	1
2 김동섭	FW	1	
3 김은선	MF	1	
4 임선영	MF	1	
5 슈바	FW	1	
6 복이	FW		2
7 김수범	DF		1
8 이승기	MF		1

경기일자	2011년도 상대전적
03 / 16	광주 0 : 5 강원 (패)
05 / 14	광주 1 : 0 강원 (승)
07 / 09	광주 2 : 0 강원 (승)

관전 포인트	광주 vs 강원 (광주, 04/01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li> <li>최근 3경기 연속 10분 이전 득점</li> <li>주앙파울로 최근 2경기 연속골</li> <li>광주FC 창단 이후 첫 K리그 1위 도약(03/24)</li> <li>광주FC 창단 이후 첫 5경기 연속무패 도전</li> <li>광주FC 홈 승률 75%, 원정 승률 100%</li> </ul>	

백화점 · 패션 스토어 이마트

#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확대 등 일척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GWANGJU**  
FOOTBALL CLUB

POINT  
of PLAYER

## 단신킬러 주앙파울로 VS 시마다



이번 경기에서 단연 주목 되는 선수는 광주의 복덩이 주앙파울로다. K리그 개막전부터 4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그 어떤 선수에 비교해 봐도 뒤질 것 없는 맹활약이다. 게다가 한 경기에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세의 경기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주앙파울로는 중국 동계훈련 기간 10경기 10골을 기록하는 등 광주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든 상태. 특히 후반 조커로 투입돼 극적인 골을 성공시키고 있어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반면 강원은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시마다 유스케가 매 경기 좋은 모습으로 골문을 위협하고 있다. 주앙파울로와 같은 170cm 단신으로 빠른발과 프리킥이 장점이다. 시마다는 현재까지 1골을 기록하고 있으나 4경기 7개의 슈팅 가운데 5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 될 만큼 강원 공격의 중심에 서있다. 두 단신킬러 가운데 누가 돌풍의 주역이 될지 주목된다.



광주 꽃미남 임선영  
주간 베스트11

### 부상 악재 딛고 부산전서 '프로데뷔골'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주말(24, 25일)에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4라운드 8경기를 평가한 결과 광주의 임선영(MF)을 베스트일레븐으로 선정했다.

이날 중원의 사령탑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임선영은 전반 9분 김수범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 이 골은 첫승에 목말라 있던 부산을 꺾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는 임선영의 플레이에 대해 "다재다능한 광주의 비밀병기로 1득점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임선영의 이번 골은 부상의 악재를 딛고 세운 첫 프로 데뷔골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임선영은 지금까지 발목부상으로 3번의 수술을 받았다. 시기도 민감한 고교 1년과 3년 대학3-4학년 시절이다. 임선영은 진지하게 축구를 그만 뒀다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임선영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 4번의 기도를 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도와 팀 선수들의 부상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아직 얼떨떨하지만 정말 기분 좋고 신난다. 앞으로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든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 다시한번 FIGHTING!

KJB  광주은행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신화인 김홍빈  
원혼기적이 없는 장애인으로 사상 첫 남극 횡단 시종 동행  
장애인 사상 첫 지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  
대한장애인농구대표팀(4인)과 일본을 제치고 정상에 등극하여 광주은행 행기를 듣고 기념 촬영한 모습



## “간절함이 가져다 준 광주FC의 희망”

선수단 굶은 땀방울 창단 첫 2위 일귀  
시즌권·후원 등 지난 시즌비 2배 돌파  
구단주 지난 30일 선수단과 오찬 격려

K리그 2년차 광주FC가 시민들의 사랑 속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시즌 시민구단 창단 최다승을 거둔데 이어 시즌 시작과 함께 4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랭킹 2위에 올랐다. 사무국에는 시즌권 판매, 기업협약, 격려전화 등이 빗발치는 등 시민 품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광주는 지난 3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개막전 상주 상무 원정 경기를 이긴 것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며 3승 1무 성적을 기록했다. 아쉽게 1위 서울에 골득실에서 밀리며 전체 2위를 차지했지만 K리그 2년차 프로팀이 상위권에 랭크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박기동, 이용 등 주전급 멤버들이 빠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올 시즌 광주의 돌풍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는 8년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시민들의 사랑이 모여 탄생한 시민구단이다.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주주가 되어 힘을 실어 줬고, 지난해 역사적인 개막전에는 3만6천명의 관중들이 목이 터져라 광주를 응원해 줬다.

야구의 도시 광주에서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강등권 후보로 거론되는 등 여러 일들이 광주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K리그 1년 차 젊은 광주 선수들은 시민들에게 땀과 열정으로 다가섰고, 시민구단 창단최다승을 거두며 시즌을 마무리 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연습구장, 숙소 등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도



광주FC(단장 박병모)는 지난달 8일 노사합동으로 사회공헌과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형철)와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 등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

선수들의 거짓되지 않은 노력에 광주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수단이 동계훈련에 돌입하자 밤샘 야근을 하며 구단의 자산인 시즌권 판매와 스폰서 협약에 열을 올렸다. 광주시교육청, 한전, 어린이재단, 빙스 등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서포터즈 등과도 접촉을 하며 구단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그런 광주의 간절함에 모두가 손을 내밀었다. 광주는 시즌권 판매량은 1만7천여매로 전년에 비해 이미 2배가 넘었다. 스폰서, 패밀리십 협약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광주FC의 시즌권을 구입하면 음식점, 병원, 극장, 헬스클럽, 테마파크 등 모두 80여 곳에서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팀이 순항하니 팬들의 관심도 뜨겁다. 부산전이

끝난 후 구단 사무실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모두 응원과 격려전화였다. 구단에서 집중하고 있는 SNS 내에서도 전국의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이 전해져 오고 있다. 광주FC 여론 분석결과 ‘응원, 사랑, 화이팅’이 가장 많이 탐색어로 나타날 정도다.

구단주의 관심도 각별하다. 구단주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시즌 광주월드컵경기장을 10번 이상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오는 30일에는 직접 선수단과 함께 오찬을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해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은 “다른 구단들은 창단 후 ‘2년차 징크스’에 빠지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사랑으로 태어난 광주는 거꾸로 행복한 징크스를 만들어 냈다”며 “시민들이 보내 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